

# 변화·혁신·소통·신뢰로 글로벌 경제위기 파고 넘는다

## 그룹별 신년사 화두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2일 신년 시무식을 열고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재계 총수들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영 환경이 어렵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계 총수들의 경영 화두는 '변화와 혁신' '미래 경쟁력 확보' '소통과 신뢰' 등으로 정리된다.

## 창립 50주년... 초격차로 100년 기업 도약



삼성전자는 2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행사는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과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년사는 김 부회장이 맡았다. 초일류·초격차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당부에 중점을 뒀다.

김 부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 10년 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100년 기업 계기를 마련하자"며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차세대 제품과 혁신 기술로 신성장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설적인 실패를 두려워하는 기업 문화와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사자성어 '법고창신'을 인용하면서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고창신은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면서도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울러 김 부회장은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다짐으로 신년사를 마무리지었다. /김계용 기자 jkk@

## 새로운 도약... '게임체인저'의 원년 될 것



지난해 9월 승진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양재동 사옥에서 처음으로 시무식을 주재하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2019년 그룹 신년사에서 ▲사업 경쟁력 고도화 ▲미래 대응력 강화 ▲경영/조직 시스템 혁신 등을 강조하는 한편, 2019년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올해가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체인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2019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정 수석부회장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정의선 체제'가 본격 시작됐다는 의미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

을 내비쳤다. 정 수석부회장은 판매 부진으로 고전해온 미국과 중국 등 주력시장에서의 조기 정상화와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서의 그룹 전략을 제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사회와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 키워나가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사회와 함께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SK그룹은 2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2019 신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과 최신헌 SK네트웍스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회장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CEO들간 대담을 끝낸 후



최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CEO들간 대담을 끝낸 후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했다. 올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다는 의미로 변화를 꾀했다는 설명이다. 토의 주제는 ▲사회와 SK 구성원의 행복 ▲사회적 가치(SV)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등으로, CEO들은 SK가 더 행복하려면 여러 이해관계자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 회장도 이에 동의를 표하며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자라고, SK가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척도가 바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4가지 행동원칙을 제시하고 올해 경영 목표를 소개했다. ▲회사의 제도 기준을 관리에서 행복으로 바꾸고 ▲핵심성과지표(KPI)에서 SV 비중을 50%까지 늘리며 ▲구성원의 개념을 협력업체 등으로 확장하고 ▲격려하기 등 작은 실천의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등이다. /김계용 기자

##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정신 더 발전시킬 때



구광모 LG 회장(사진)이 고객 만족을 경영 목표로 들었다.

LG는 2일 'LG 새해 모임'을 열었다. 구 회장 첫 주재 신년행사로, 31년만에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벗어나 서울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구 회장이 처음 주재하는 신년 행사로 이목을 끌었다. 부회장과 사장단을 비롯해 생산직과 연구직 등 다양한 직무 직원들까지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70여년간 LG가 매



파트너사들의 신뢰와 협력이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구 회장은 올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기본 정신을 깨우고 더 발전시킬 때라고 당부했다. LG가 나아갈 방향이 고객에 있었다며, 신년사에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30차례 걸쳐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구 회장은 고객 사랑

을 실천하기 위한 세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 ▲남보다 앞서 주는 것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며,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이다. 앞서 구 회장은 LG가 가장 먼저 소비자대신 고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주요 회의 석상에 '고객의 자리'를 두었으며, 결재 서류에도 사장보다 높은 자리에 '고객 결재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계용 기자

## '승풍파랑' 각오 다지며 새해 출발 다짐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이 글로벌 경기하락 및 무역전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승풍파랑(乘風破浪)'을 새해 경영화두로 제시했다. 승풍파랑은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간다'는 의미다. 포스코는 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한 그룹사 임직원, 노동조합 및 노경협의회 대표, 협력사, 공급사 대표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최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100대 개혁과제' 실행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철강사업은 프리미엄 제품판매 확대와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강화에 매진하고, 생산현장에서는 '안전해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양성운 기자

## 효율적 자산 운용으로 그룹의 미래 재투자 강조



LS그룹구자열 회장(사진)이 새해 첫 날 신년사를 통해 "각 계열사가 추진해온 내실 경영을 체질화하고 운전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렇게 확보되는 자원은 다시 인수합병(M&A)이나 해외 진출, 인재 확보 등 그룹의 미래 준비에 재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이날 구 회장은 "올해는 국내외 경기가 지난 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흥국과 내수에 기반을 둔 우리 사업에 매우 힘든 한해가 될 게 분

명해 보인다"며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진단했다. 구 회장은 LS그룹의 '새해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주력사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실적 강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불확실성이 큰 해임을 감안해 현금으로 확보되는 자원을 그룹의 미래 준비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백년기업' 효성을 만들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조 회장은 올해를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해당



은 고객에게 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게 모든 일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유진 기자

특히 그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야 우리 비즈니스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효성인들의 의지가 하나하나 모여서 변화를 주도할 때 비로소 고객과 함께 항상 승리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 앞으로의 10년, 성패 좌우할 '혁명적 변화의 시기'



한화그룹김승연회장(사진)은 "앞으로 10년이 '무한기업' 한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겪어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혁명적인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같이 주문했다. 김 회장은 ▲사업 부문별 경쟁력 있는 글로벌사업 확대 ▲신성장동력의 엔진이 될 특급 인재 확

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그룹 준법경영 강화 등을 새해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누리호 시험발사체 테스트 성공을 언급한 뒤 "한화와 한화인의 역량이 이처럼 세상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전할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